

경남공불련 연합법회 성료

경남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공창석)는 12-13일 합천 해인사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했다. 열린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종정 법전스님, 김혁구 경남도지사를 비롯해 경남도청과 20개 시, 군 5백여불자가 동참했다. 법회에 초청된 한국화가 이창호 화백(왼쪽)이 공창석 회장(오른쪽)에게 달마도를 전달하고 있다.



가정마다 '축제의 등' 답시다

성북승무소 법우회·승만부인회 캠페인 전개

인테리어 소품 활용 가능 전통등 제작
성북역사등 장식·이웃에 무료 보시



성북승무소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가정마다 축제의 등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기 위한 전통등 강좌를 18일 기원사에서 개최했다. 사진은 회원들이 전통등을 만드는 모습.

월도청 성북승무소 법우회(회장 박운해)와 승만부인회(회장 김재남)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가정마다 축제의 등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부처님오신날을 불자들의 축제로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나아가 모든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다는 것.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불자가 아니

까지 이웃을 중심으로 무료 보시에 나선다. 성북역사와 주변 거리의 연등 부착 및 점등은 법우회 주관으로 부처님 오신날을 전후해 10여일간 불을 밝혀 봉축 분위기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18일 서울 월계동 기원사에서 전통등을 연구하는 김영만 포교사를 초빙, 등 제작방법을 배우는 한편 아이디어 모으기에 나섰다. 이날 강좌에는 법우회와 승만부인회 회원 60여 명이 동참해 전통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법우회 박운해 회장은 "은 세상에 큰 빛으로 화려하신 부처님께서 오신 날의 의미가 불자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축제로 느껴지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며 "가정마다 축제의 등 만들기 캠페인의 취지를 공감하고 모든 불자들이 동참해 이웃과 함께하는 부처님 오신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법우회와 승만부인회는 18일 성북역 승강장에서 인천-의정부행 열차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열차 앞에 부착할 수 있는 연등을 보시하고 간단한 다과도 제공, 열차 안전운행을 발원하는 마음을 전달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단위 산악회 연결 조직 결집"

대한불교전국산악인련 정인악 총재



개회 회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응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방만한 조직을 하나로 결집하는 일이야말로 시

모범적인 신행단체로 거듭날 수 있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단위 산악회를 연결하고 결속시켜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교회관 하나 갖고 있지 못한 불교계의 현실을 보면서 불교지도자를 비롯한 불자들의 의식 전환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불교산악인연합회부터 중앙 임원과 단위 산악회 임원을 시작으로 현대사회에 맞는 마인드를 갖춘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정탄탄한 불교장학회 서원

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정인악(68·사진) 총재는 불교계 단체들의 비능률적인 체계를 지적하며 "이름만 있을 뿐 실체가 없는 단체들이 많은 게 불교계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15개 지회, 40여 단위 산악회의 연합체인 불교산악인연합회도 이와 똑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시인하면서도 특정한 조직구조,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한 회원 구성 등 활성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정 총재는 "단위 산악회는 특정한 하부조직 구조를 갖고 있어 중앙에서 응집할 수 있는 동력만 갖춘다면

이를 위해 27-28일 공주 감사에서 열리는 임원연수와 6월 2일 서울에서 열리는 창립 5주년 기념행사를 활용하는 한편 개회 회원들의 '현대불교' 구독을 장려, 불교소양 교육을 대대적 계획이다. '현대불교'가 불교적 이슈는 물론 교리, 신행담, 큰스님 법문 등 다양한 내용을 갖춰 회원들의 생활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문회장 등 불교계 활동에 열심인 정 총재는 탄탄한 재정구조를 갖춘 불교장학회를 설립하고 싶어한다. 취약한 어린이·청소년불교와 불교적 신앙관이 미흡한 청년불교를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모임에선

금당단불교련 27일 연합법회 봉행

전국금당단불교연합회(운영위원장 이탁수)는 27일 오후 4시 서울은행 본점 4층 강당에서 연합법회를 봉행한다. 12개 소속 150여 회원 및 가족이 참여하는 이날 법회는 금용인 불자들의 교류와 화합도모를 위해 마련된다. 소적새마을을 원각스님의 법문이 있을 예정이며, 불전함 보시금과 특별성금을 모아 소적새마을에 전달한다.

전국경찰불교회 수덕사서 창립1돌 법회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중겸)는 28일 오전 11시 예산 수덕사에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경찰청을 비롯해 서울, 부산 등 전국 경찰서 불자회 회원 1천여명이 동참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경찰불교회간 교류 활성화와 미창립 경찰서 지원대책 마련등을 모색하고 경찰불자간 도반애를 나눌 예정이다.

국회 정각선원 개원 7돌 기념법회

국회정각회 직원불교신도회(회장 김종환)는 30일 오후 6시20분 국회내 정각선원에서 선원 개원 7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법회에서는 금강선원 주지 혜거스님(한국전통불교연구원장)을 초빙해 법문을 듣는다. 특히 이날 법회를 계기로 국회직원불교회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설 예정이다.

청불회장에 김상남 복지노동수석

제7대 청와대불자회 회장에 김상남(56·사진) 복지노동수석이 추대됐다.

김상남 신임 회장은 16일 상경례를 겸한 첫 임원회의를 열고 취임법회와 종단 대표자 면담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취임법회는 부처님오신날 이전

봉행한다는 원칙에 따라 5월 10일경 개최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에 앞서 4월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 면담을 시작으로 주요 종단 대표자 면담을 통해 청와대불자회 활동의 폭을 넓혀가기로 했다.



이번 청와대불자회의 김상남 회장 선임으로 박준영 회장 사퇴 이후 회장직 공석에 따른 정 부부처 공무원 불자회의 위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전 서구청·소보원 불자회 창립



대전 서구청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대전 서구청 불자회(회장 강선규·사진 오른쪽)는 18일 백제불교회관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또 부처님오신날 이전 창립을 목표로

대전광역시청과 유성구청, 동구청에도 불자회 창립이 준비되고 있어 대전광역시청을 비롯한 모든 구청에 불자회가 창립될 전망이다.

서구청 불자회는 창립에 앞서 지난 3일 창립 준비모임을 갖고 초대회장에 강선규 위생과장을 선출했다.

4일 소비자보호원 본토의실에서는 소비자보호원 불자회(회장 신동구·사진 오른쪽)의 창립법회가 봉행됐다. 20여명의 회원이 동참한 이날 법회에서는 신동구 소비자안전국장을 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원진을 구성했다.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 불교협의체 구성 기대

불자 방송·언론인 연수가 27-28일 오대산 월정사에서 열린다. 이번 연수는 수행과 생활생활에 대한 강의, 선 실수, 108배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며, 28일에는 상원사 순례도 있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연수에서는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등 불자회 미창립 신문사의 불자들이 동참할 예정이어서 각 언론사 불자회 구성 및 방송·언론사 불교협의체 구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주의 법회

- 24일
 - △현대대석유화학 현불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서산 망일사 △국립춘천정신병원 참나불자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춘천 대원사 △대우중합기계·K시 불자회 정기법회=오후 5시30분 창원 성주사 △춘천시청 도민회 정기법회=오후 7시 춘천 정토사
- 25일
 - △보훈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26일
 - △국립경향병원 불교회 환자법회=오후 4시 병원법당
- 28일
 - △전력인물자연연합회 연합법회=오전 11시 공주 동화사
- 29일
 -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 정기법회=낮 12시 병원법당
- 30일
 - △국회 직원불교회 정각선원 개원7주년 기념법회=오후 6시20분 △삼천포화력 반야회 정기법회=오후 6시30분 고성 운흥사 △환경 불자회 창립법회=오후 7시 서울 구룡사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02)722-4162

한민족시조비님 제향일에 즈음하여

天地萬物이 씨앗의 성분대로 유전이 되어 종자를 이어 가듯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은 신령한 정신의 사상으로 이어져 가는 것이니 가정에는 가훈(家訓)으로, 나라에는 민족정신의 사상(思想)으로 민족이 살아가고 나라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한민족시조님께서서는 지구촌의 중앙인 이 땅에 하강하시어 천지인의 현묘지도(玄妙之道)를 바탕으로 성명정(性命精) 삼진귀일(三眞歸一)에 순응하여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홍익대리를 민족의 가훈으로 정립하시고, 사람의 도리인 충효성경(忠孝誠敬)의 인지본(人之本)을 단군자손의 성심신(性心身)에 초목을 심듯이 심어 놓으셨으니 첫째, 나라가 있어야 하는 이치를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충성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 나를 낳아 주시고 길러 주신 부모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하여 효도를 가르쳐 주셨으며 셋째, 천지이치를 모르면 악에 빠져 영혼을 구할 수가 없으니 진리의 성현께 성경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단군자손들은 자연법리에 순응하는 인지본을 지키고 행하여 인과 없는 천손으로 태어나서 천운과 천복을 받아 수많은 외침과 시련 속에서도 오천 년 동안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51세기의 과학문명이 발전되는 세상에 도덕이 없으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없고 문화 문명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민족뿌리의 사상이 없으면 사람이라 할 수 없으니, 사람의 도리인 충효성경으로 민족뿌리와 도덕을 찾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로소 자연을 거스르지 않아 어지러운 세상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하늘뿌리 종교, 태극민족 종교, 인류도덕 종교인 미륵대도에서는 태극백종(太極百鐘)을 울리어 겨레혼을 되살리고 민족정신으로 의식개화하여 주체성 확립의 이정표가 되는 한민족시조비님 제향일을 음력 3월 15일로 정립하여 대효(大孝)를 실천하고자 하오니, 이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이라면 종교를 초월하여 지성동참하시어 민족의 운상(倫常)을 바르게 세우고 민족의 뿌리로 대화합하여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 일 시 : 임오년 음력 3월 15일 오전 6시 (양력 2002년 4월 27일)
- 장 소 : 미륵대도 총무원 한민족시조전
- 연락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산 84-3
- 전 화 : 032-832-0626 / 팩 스 : 032-831-8967